

# 제2회 대전충남 인쇄문화축제 열려

## 1천여 인쇄가족 참여 풍성한 화합한마당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구자빈)이 주최하고 대전인쇄문화RIS사업단(단장 김학진)이 주관한 제2회 대전충남인쇄문화축제가 지난 10월 9일 대전시 동구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인쇄인들의 '화합, 단결!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후원했으며,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임영호 국회의원, 대전충남 인쇄인가족,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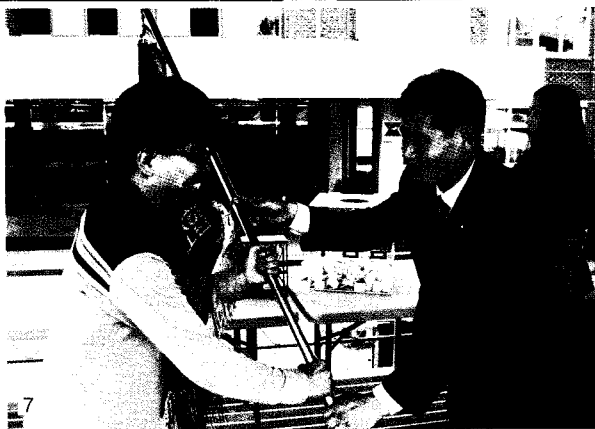
###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약을 향해

구자빈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제2회 대전충남인쇄문화축제를 마련하신 인쇄인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대전충남의 인쇄산업은 또 한 번 크나큰 기회를 가졌는데 다음 아닌 충남도청의 흥성 이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주 확정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 대전충남 인쇄산업에 새로움을 안기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이사장은 "오늘의 축제는 바로 그러한 내일을 위한 축제이자 준비이기도 하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길은 세종시로 통하게 될 것이기에 그러한 수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한다"고 인쇄인들에게 당부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은 축사에서 "인쇄문화축제를 통해 인쇄인들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고 인쇄산업의 위상을 대내외로 널리 알려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을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인쇄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이룬 무대

이번 행사는 3천여 대전충남 인쇄 종사자 등의 화합을 다지고 인쇄산업발전을 위해 인쇄문화 대학생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인쇄의 달인 선발대회, 체육대회, 가족장기자랑, 인



1 제기차기 경기장면  
 2 접수하고 있는 인쇄인들  
 3 축구 경기장면  
 4 타자의 달인 경기장면  
 5 수정합의 달인 경기장면  
 6 제1회 전국공모인쇄문화대학생디자인전 수상자인 이슬·황소정 학생  
 7 우승기를 넘겨주고 있는 구자빈 이사장

쇄인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출력, 재료·지업사, 오프셋·경인쇄, 후가공 팀으로 나눠 축구, 릴레이 경기가 있었다. 특히 인쇄인들답게 교정의 달인, 수정합의 달인, 타자의 달인 등 '인쇄의 달인 선발대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뤘다. 개인별 경기로 홀라후프, 제기차기, 윗놀이도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경기 중간 중간 진행된 경품추첨 시간에는 기쁨의 환호성과 함께 탄식의 소리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축제는 경품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타올을 증정했으며, 드럼세탁기, 벽걸이형 TV,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압력밥솥, 진공청소기, 쌀, 문화상품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으로 행사를 빛냈다. 행사 마지막에 열렸던 가족장기자랑과 인쇄인노래자랑에는 각자의 장기와 노래실력을 뽐내며 인쇄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이루는 무대가 되었다.

#### 제1회 전국공모 인쇄문화 대학생디자인전 수상자

제1회 전국공모 인쇄문화 대학생디자인전 시상식에서 편집(북)디자인 부문에 대전대학교 이슬, 황소정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은 홍익대학교 이슬아, 은상은 대전대학교 갈규호·백순천, 동상은 동덕여자대학교 이정민, 이은비 학생이 수상했다. 포스터 디자인 부문 금상에는 한국폴리텍1대 김예지, 은상은 대전대학교 박규리, 동상은 건국대학교 이희영 학생이 수상했다

한편 앞서 10월 8일 대전시 동구 태화장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전충남인쇄산업 발전발향'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10월 11~21일까지 대전시청과 정부대전청사, 충남도청 등에서는 대학생디자인공모전 입상작 및 대전·충남 인쇄제품 순회전시회도 개최되었다. ☞